

## 하나님의 모략 2

### 2장 죄 관리의 복음

#### 왜곡 축소된 초청의 의미

용서 받았을 뿐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영생의 선물이 그 정도로 그친단 말인가? 현재적 영생의 삶과는 사뭇 거리가 먼 말이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완전한 것과 요즈음 의미의 “용서만 받은”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용서만 받은 것보다 훨씬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삶을 한껏 맛보며 살면서도 얼마든지 성장의 여지가 남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상점에서 물건에 붙여 사용하는 바코드를 생각해 보라. 스캐너는 바코드에만 반응을 보인다. 바코드가 붙어있는 병이나 상자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바코드가 제 물건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산기는 전자 감식안을 통해서 바코드에만 반응할 뿐 그 이외에는 일절 무시한다.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선행 혹은 부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용서받기 위해 꼭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코드 신앙의 핵심이다. 그 자체로 맞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과 삶의 분리에 대해 고민하지만 굳어진 구원관 때문에 여전히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한 이런 견해에 분노를 느끼는 이들도 많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종교 생활의 문제, 곧 사랑과 정의로 사회악에 항거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바코드식 방법을 택하시겠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계획이 인간의 현실 생활의 절박한 필요를 본질상 간과하고 인간 성품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 속에 다만 한시적으로라도 아무런 도움 없이 우리를 방치해 두실 분인가? 과연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의 본질이 죽음과 내세에 국한된 것이라고 밖에 믿을 수 없는가? 구원받는다든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가?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4%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74%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다고 답했다. “중생” 체험을 고백한 이들은 34%다. 그러나 동일 집단의 비윤리 행위, 범죄, 정신병 및 정서장애, 가정파탄, 중독, 재정실패 등에 대한 통계와 신중히 비교해 볼 때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수치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는 이렇게 개탄했다.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한가? 회심자와 등록 교인은 많이 내놓지만 왜 문화에 미치는 힘은 갈수록 약해지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가?”

우리는 최소한 이런 형편없는 결과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정확히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신앙고백이 삶 전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최근 생겨난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이 심각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역사상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본질상 오직 죄, 곧 행동의 잘못, 존재의 잘못, 그리고 그 결과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처해 있다. 현재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제시되는 것 속에는 삶, 즉, 우리의 실제적 실존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극히 주변 적으로만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있는 자리다.

그러므로 오늘의 복음은 죄 관리의 복음이 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삶과 성품의 변화는 구속적 메시지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한다.

우익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다. 좌익의 경우에는 사회악의 제거에 확실하게 헌신돼 있으면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사회의 사랑과 정의에 분명히 헌신돼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다. 그 뿐이다.

좌우익의 공통점은 어느 진영도 개인의 변화에 필요한 논리적 지식과 실제 방향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일상의 구속에 관한 일관성 있는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앙성경은 분명 풍성한 삶과 순종을 향한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예수에 대한 본질적 메시지로 가르쳐지는 내용이 정작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현실이다.

#### 우익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다고 답한 74% 미국인 중 아무에게나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십중팔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답할 것이다. “구속”의 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예수의 본질적 메시지의 전부가 되고 있다. 칭의가 중생 또는 생명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이 보장하는 유일한 결과는 단지 용서받은 것이 되고 만다.

신학적 우익에서 이해하는 바로는 믿음의 절대적 표시가 되는 행동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에 의해 절대적으로 배제되는 행동도 없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용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 이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순전한 은혜에 행위를 더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알기로 그것은 개신교 문호와 유산상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을 고백하지만 행동이나 사고는 일반인들과 전혀 혹은 별로 다를 바 없는 고질적 현상은 북미의 복음주의 및 보수주의 교회 내부에 이러한 구원관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복음주의 지도층 및 추종 교인들 사이에 “주되심 구원”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보음주의 진영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존 맥아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또한 그분께 대한 “구원”의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옹호해 왔다.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되심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구원의 최대 이슈가 용서와 영원한 운명이라는 점에서 맥아더 역시 자신의 반박자들과 생각이 같다. 맥아더는 구원을 얻기 위해 주되심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박자들은 다른 구원을 얻는 데는 주되심 헌신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된

다.

천국의 삶-영원한 질의 삶-을 지금 사는 것을 목표로 본다면 구원과 믿음과 용서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수의 말씀과 행동의 의당 보여주는 바로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언이며 제자도와 용서와 천국은 당연한 부분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전통은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한 개입, 혹은 소외에 있다. 그것이 현재의 삶을 위한 성경의 해답이다.

사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오늘의 삶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그분을 신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일에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그것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천만부담한 말이다. 하나의 생명 안에서 그럴 수는 없다.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속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지금과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요 가까운 실체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다.

#### 좌익의 복음

신학적 스펙트럼의 반대쪽 극단에는 복음의 이슈 및 복음 자체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다른 많은 목회자, 신부, 회중들이 자리하고 있다.

압제받는 이들에게 해방을 위해 아니면 그저 지역 사회에 헌신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본질 전체가 되고 말았다. 이런 입장에서 보는 복음 또는 기쁜소식이란 하나님이 친히 해방과 평등과 지역 사회를 지지하신다는 것 예수가 그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혹은 적어도 그런 것들의 결핍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모든 노력과 동향 속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이다.

초월적인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인간에게 삶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가르쳐 주시건만 이런 사랑은 그런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현대 사조가 말하는 개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그 사랑의 의미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해방시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 삶과 신앙의 통합을 향하여

우리 앞에는 한편으로는 소위“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실체이자 그분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과 순종이 있다. 그러나 믿음을 삶으로 이어주는 제대로 된 다리는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품의 변화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다.

현대의 좌우익 복음은 신자들의 온전한 성품과의 개념적 단절성과 함께 실제적 무관성을 똑같은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전체 생활, 특히 직업이나 근무 시간, 가족이나 이웃과의 구체적 인간 관계에 대해 양쪽 모두 본질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러한 삶의 무관성은 각 진영의 복음의 내용 자체 곧 그 내용과 주제에서 비롯된다. 두 복음의 관심은 죄책이나 구조악 및 그 해결에 있다. 그것이 전부다. 그들의 실제 삶이 복음없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우리가 지금까지 묘사한 상황-삶과 신앙의 분리, 교회 내 스승 예수의 부재-은 악한 세상이나 사회 압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교회 예배에 찾아와 회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의 못된 고집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분히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 꾸준히 듣는 기본 메시지에 의해 유발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각기 다른 형태의 죄 관리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이 일과 사업과 직업의 한복판을 살아가도록 현재적 영성으로 부르시는 예수의 초청은 대부분 무시된 채 침묵 속에 남아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현재적 실체를 예수의 말씀과 인격을 믿는 믿음을 통해 말과 삶으로 똑바로 제시해야 한다.

### 3장 예수가 알았던 세상: 하나님 충만한 세상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다시 본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분의 세계관을 공유 할 때에만 우리의 효과적인 생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분이 보시는 세상은 하나님으로 젖은 세상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영광의 실체로 충만한 세상이요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님의 직접 적 지식과 통제영역 안에 있는 세상이다. 물론 선하신 뜻이 있어 분명 그 중 일부를 잠시 당신이 원하시는 바와 다른 상태로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상 할 수 없이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다.

예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 복음의 이해와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이며 물리적 우주가 어떻게 거기에 부합되는 지를 제대로 보는 데 있다. 하나님의 삶이 아주 신나는 삶이며 그분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기쁘신 존재다.

#### 인간의 환경인 하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예수는 이 우주가 살기에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라 확언하신 것이다. 우리 실존의 모든 기본 요소인 의식주와 기타 삶의 필요에 대한 당당하면서 해석학적이기까지 한 이러한 확신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분명한 시각으로만 뒷받침 될 수 있다.

####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하나님과 자신과 공간 속에 나타나신 그분의 역사적 현현을 혼동하여 결국 그분을 오즈의 마법사나 시스티나 성당 벽화의 주인공같이 우리에게서 아주 먼 곳에 앉아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결코 공간에 계시지 않고 하늘의 호호 할 아버지도 아니며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 계시다고 말하게 되었다.

공간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삶에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에 가둠으로써 가까운 분으로 삼으려는 이런 잘못된 시도는 인간 생활에 대한 그분의 직접적 개입

의 개념을 가차없이 짓밟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또한 반대로 인간의 마음 “속에” 계시다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럴 듯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개념이다. 사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내 마음속에”는 “내 상상 속에”로 변하기 쉽다. 어느 경우이든 공간과 물리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공간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삶에도 존재할 수 없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마음 즉 의지란 곧 인간의 영혼이다. 이 인간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로 받아들이실 우리 안의 유일한 영역이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 존재의 영적 측면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의 장소다. 그 안에서만 우리의 삶 전체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및 그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께 의존하여 사는 삶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이 영적인 세상인 까닭이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 속에 점진 통합시켜 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영원한 것의 본질을 입게 된다. 언젠가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영적 실체로만 유지되고 더 이상 물리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며 바로 그 시점에 적합한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사망의 폐기

몸의 죽음을 개인의 존재의 종말로 믿고 있던 당시의 한 집단에게 예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존재의 종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수는 당신을 믿는 이들 그리하여 당신과 하나님 안에 흘러넘치는 그 생명을 받은 이들은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이 죽어 있는 상태를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며 실제로 잠자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쓴다. 우리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뿐이다.

어느 쪽이 정말 위인가?

모든 것을 열린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 자신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분의 뜻이 완전히 지배하는 영적 존재 영역이다.

그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인간의 나라는 인생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지라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인간의 뜻에 의해 지배되는 가시적 실체의 작은 부분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구분법에 대한 그분의 반전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 반전은 하나님 나라의 항거할 수 없는 실체가 되어 조만간 만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인간의 삶은 위대한 반전에 필시 저항하게 마련이다.

인간의 지식과 총명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적 세계가 현실 생활에 타당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란 아무리 사상의 풍부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현실 생활에는 참새와 어린아이의 하나님이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다. 예수도 현실과 무관하게 마음만 착한 판 세상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분의 영향력이야 인정해야 됐지만 그것은 오직 그분이 살벌한 세상에서 심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의 꿈을 긍정하기 때문일 뿐이다.

현실 세계에 대한 이런 응원식 접근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사이에 정말 효력을 나타낸다 해도 사람들은 혹 그 신념은 믿어 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믿음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과 그분의 세상은 그들에게 어디까지나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을 믿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

그들은 기도를 믿으며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정말 기도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나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거듭 확인하곤 한다.

#### 지성의 주이신 예수

현대의 시류를 쫓아가는 한 우리는 삶과 제자도에 대한 예수의 복음에서 영영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역사적 기독교의 중심 노선은 근본적으로 영혼과 영적인 세계의 본질적 실체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기반은 오직 하나,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우주에 대해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인식에만 있을 수 있다.

초대 교인들이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분의 지성적 위대함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인간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근본적인 기반이다.

예수께서 현실의 모든 영역-육체적, 도덕적, 영적-을 지식과 실제면에서 완전히 통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분이 주님인 것은 과연 명장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저 선하신 정도가 아니다. 그분은 총명하신 분이다. 세계역사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계1:5). 동시에 우리의 미래의 역할을 위해 우주의 나머지 부분을 예비하고 계신다(요14:2). 언제나 모든 일에 최고의 정보를 갖고 계시며 인간 생활에 가장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